

공동체 소식



성체성혈 대축일

주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안내: 예수 성심 성월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은 성체성사로 잘 드러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예수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여야겠습니다.
- 기도: 6월 중에 봉헌되는 모든 미사의 파견에 식 전에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매일미사 3쪽 참고)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이며, '사제 성화의 날'입니다.

- 미국 교포사목 청주교구 사제단 모임
 - 일정 : 06/06(수) 18:00 - 08(금) 18:00.
 - 공동집전미사 : 06/06(수) 저녁 6:30.

주일미사 참례와 교무금 납부는 신앙생활의 의무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s Call to Share'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 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https://www.calltoshare.org/>)

전례 성가

	시작	예물	성체	파견
금 주	401	216	151	169
차 주	2	219	160	201

주일미사 복사

	항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정원 안젤라
차 주	이원준 요한	차민서 임마누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네스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차 주	박태주 로마노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인자, 조지연, 정연숙
차 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감영진 라파엘, 조진환 베드로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5/27	30 명	98 달러	330 달러
이영민, 박동희, 박재천 (총 3 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구원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체와 성혈을 기리며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림 묵상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이웃의 사랑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늘 기억함으로써 성체의 신비를 내 안에 담게 될 것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4,3-8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한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9,11-15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2-16.22-26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생명의 말씀

사랑의 표징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꽃다발, 선물, 식사 초대를 통해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에 당신 사랑, 곧 당신 자신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 중에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포도주잔을 건네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 몸이 못 박혀서 빵처럼 찢겨지고, 붉은 포도주 같은 피를 흘릴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 곧 당신 자신을 몽땅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신이라는 울타리에 갇히기 쉽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선 사랑, 자신을 내어 놓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만이 사람을 키우고 치유하며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랑이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성체 안에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열매를 선사해주십니다. 즉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도 용서와 자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세력을 쳐 이기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제2독서)을 받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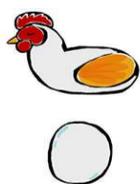
다른 한편,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도 당신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듯이(제

1독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어야 합니다. 비폭력적 저항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룩한 마하트마 간디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죄악 중의 하나로 '희생 없는 신앙'을 꼽았습니다. 겉으로만 희생의 덕을 찬양할 뿐 희생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을 꾸짖은 것입니다. 미사 때마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작은 희생조차 꺼려한다면,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참되게 공경하는 길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표징인 성체를 영하면서 그분의 자기 봉헌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도 일상의 삶에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표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어려운 질문.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인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인가요?
쉬운 질문.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마르 14,22)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모든 삼진은 홈런으로 가는 길이다

'아이러브베이스볼'이라는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처음 진행한 이후 어느덧 아홉 해가 흘렀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저에게 사람들은 야구의 매력이 뭐냐고 묻습니다. 3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민 스포츠 야구는 저마다 사랑받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저는 야구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어서 야구를 더욱 좋아합니다. 야구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스포츠입니다. 통상 훌륭한 타자로 여겨지는 3할 타자는 10번의 기회 중 3번은 성공했고, 7번은 실패했다는 것인데 이것만 보아도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지 보여줍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만의 타석에 섭니다. 어떤 날은 만족스러운 방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욕심만큼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야구에서처럼 저도 만족스러운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엔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저 자신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수 있는 일이지만 저의 실수 앞에서 저는 스스로를 혹독하게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하여 아홉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고 돌아켜보니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공과 실패 속에 흔들리며 배우게 된 것은 '실패를 하지 않는 법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3할 타자만 돼도 잘한 거야'라는 생각을 하니 실수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

고 실패에도 너무 깊이 상심하거나 저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기를 바랐던 것이 어찌면 나의 오만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아니니까요.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마음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완벽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고, 늘 성공할 순 없지만 그래도 성공적일 수는 있는 거니까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타자 베이브루스는 선수 생활 동안 714개의 홈런을 치며 12번의 홈런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많은 홈런을 기록할 수 있었냐 묻자 그는 "내가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1330개의 삼진아웃을 당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2번의 홈런왕이면서 5번의 삼진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삼진은 홈런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의 말은 솔한 실패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건디어 내십시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히브 12,7,11)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맞는 시련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훈육이자 결국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큰 성공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최희 마리나 | 아나운서

교리상식

하루에 여러 번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미사 때 영성체를 자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성체를 열심히 모시려는 신심 운동이 퍼지면서 날마다 영성체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7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까닭은 교회가 영성체를 권장하지만 남용이나 미신적인 집착은 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말 발행